

李 대통령 숨가뺐던 외교 데뷔전...“정상외교 복원”

9개국 정상과 회담...유엔 수장도
한일회담 “한미일 공조 유지·발전”
‘국익 중심 실용외교’ 첫걸음 평가
대통령실 “국가 위상 분명히 해”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의 무대에서 이틀간 펼친 정상외교 데뷔전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취임한 지 12일 만에 이뤄진 첫 해외 방문으로, 이 대통령이 천명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처음으로 국제 무대에 오른 자리였다.

이번 회의에는 G7 회원국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외에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정상 및 이 대통령이 초청받았다.

이 대통령은 초청국 자격으로 총 9개국 정상과 유엔 수장을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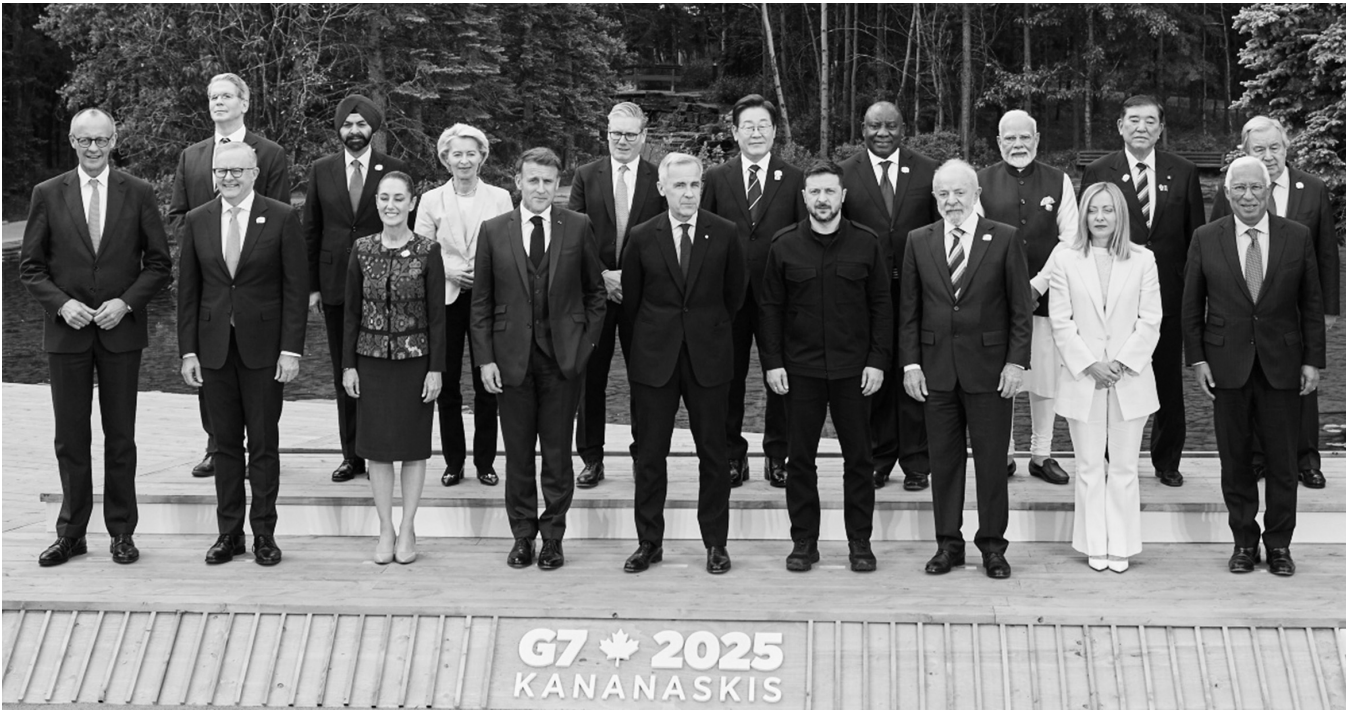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회담하며 한일 정상 외교에 시동을 걸었고, 주요국 정상들과 친분을 쌓고 국제 정세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시바 총리와의 회담에선 북한 문제를 포함해 지역의 여러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한미일 공조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고 한일 간 협력도 심화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특히 양 정상은 ‘셔틀외교’ 재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이를 위해 당국 간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번 순방의 최대 성과가 될 것이라며 관심을 모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회담은 불발됐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성과로 가장



이재명 대통령(뒷줄 가운데)이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G7 및 초청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먼저 국제 사회에 한국의 민주주의 및 정상외교가 복원됐음을 알린 점을 꼽았다.

또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첫걸음을 뒀다는 데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모든 양자 회담에서 예외 없이 무역, 투자, 통상, 공급망, 에너지 등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위성력 안보 실장은 이 대통령의 모든 공식 일정이 끝난 뒤 캘거리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한국의 정상 외교는 완전히 복원됐다. G7 플러스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분명히 한 성과가 있었다”라고 자평했다.

위 실장은 “앞으로 이재명 정부는 정상외교를 더 높은 단계로 강화하는 동시에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적극 실천해나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첫 정상 외교전은 분주했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 현지에서 보낸 이틀 동안 초청국 정상 자격으로 모두 9개국 정상을 만나 경제 등 다양한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고, 유엔 수장과의 회동했다.

도착 첫날엔 캘거리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호주 정상과 잇따라 회담했다.

취임 후 타국 정상과의 첫 대면 정상회담이었던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교역 투자 및 에너지 협력 확대에 공감대를 이뤘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의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둘째 날은 G7 회의장이 있는 캐내내스키스에서 7건의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했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만나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브라질의 의장국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초청받았다.

한국의 중남미 최대 교역국인 멕시코와의 정상회담에선 클라우드야 세인바움 대통령을 올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초청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를 마주해선 최근 인도 여객기 추락사고에 대한 위로의 뜻을 표하고, 핵심기술·국방·방산 등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만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안토니우 코스타 정상회의 상임의장 등 유럽연합(EU) 지도부와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브뤼셀에서 조만간 한·EU 정상회담을 하자는 제안을 받기도 했다.

이어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이시바 총리와 한일 협력 심화 및 셔틀 외교 복원, 한미일 공조의 지속적 유지·발전에 뜻을 모았다.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이 서로의 국익 발전에 손잡고 관계 개선에 나서기로 한 점은 성과로 꼽을 만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의 주최국인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며 양국 협력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공식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안보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G7 업무 오찬 및 확대 세션에서 한국의 에너지 관련 정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약속 회동에선 “오는 9월 유엔총회에서 한국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한편 이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도 이번 일정에 동행했다.

김 여사는 첫날 G7 초청국 대상으로 열린 환영 리셉션에 연노란색 치마와 녹색 저고리의 한복 차림을 하고서 이 대통령과 동반 참석했다.

이튿날에는 영부인 자격으로 첫 공개 행보에 나서 캘거리 한인회관을 방문해 현지 동포들을 만나다 이어, 캐나다 국립 장애인예술센터를 방문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현황을 살폈다.

김선욱 기자·연합뉴스

박군택, 21일 광산문화예회관서 의정보고회 개최

박군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갑·사진)은 18일 국회 등원 1주년을 맞아 오는 21일 오후 2시 광산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의정보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의정보고회는 지난 1년간 펼쳐온 의정 활동과 광산구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이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제는 광산 발전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지난 1년의 의정활동을 주민 여러분과 함께 되돌아보고, 소중한 의견을 직접 듣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양부남, ‘신종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법안 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사진)은 18일 무인키즈폴 등 신종 어린이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네와 미끄럼틀과 같은 정형적인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만을 안전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키즈폴·위터룸 등 수형시설을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놀이공간에도 안전관리의 의무를 부여하고, 중대한 사고 발생



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법률위원장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내란 종식과 국정 혼란 수습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고, 현재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돼 광주와 광산의 주요 현안이 국정 과제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24년 국정감사에선 ‘국감 우수의원상 3 관왕’을 차지하며 탁월한 의정 활동 역량을 입증받기도 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시 보고 기한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놀이시설 설치 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와 제재 규정을 마련했다.

양 의원은 “변화하는 놀이환경에 맞춰 제도도 달라져야 한다”며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린이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8·2 전당대회...당권 ‘친명 대결’ 가시화

정청래 출사표...박찬대, 주말 출마 예상
지지층 결집 물밑 경쟁...3파전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의 새 당 대표 선출을 위한 8·2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명(친이재명)계 주자들의 경쟁 구도가 가시화하고 있다.

18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4선의 정청래 의원이 일찌감치 당권 출사표를 던졌고, 직전 원내대표를 지낸 3선 박찬대 의원도 이번 주말께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자연스럽게 양측 지지자들도 결집하는 모습이다.

지난 15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정 의원은 방송 출연 등 일정을 소화하며 표심 관리에 나서고 있다.

전당원투표제 상설화, 연내 검찰·사법·언론개혁 마무리,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민주적 공천 제도 마련 등 공약도 제시했다.

이재명 1기 지도부 최고위원을 거쳐 원내대표를 성공적으로 마친 박찬대 의원 역시 당 대표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

려졌다.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는 시점에 맞춰,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할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서 “박 전 원내대표가 머지 않아 이번 주 주말이나 출마 선언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당 대표 후보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노종면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에서 “(전당대회가) 2파전이 될지, 3파전이 될지, 더 될지 그건 알 수 없다”며 “(정 의원·박 의원 외에) 지금 검토하는 분이 계신 것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당대회 구도가 차츰 윤곽을 드러내면서 친명계가 주축을 이룬 권리당원들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물밑 경쟁이 벌어지는 모습이다.

당원들 사이에서는 지난 15일로부터 박 의원을 당 대표 후보로 추천한다는 내용의 온라인 연판장이 공유됐다.

박 의원 팬클럽을 중심으로 200~300여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채팅방도 개설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의 팬클럽 역시 ‘이재명·정청래 수호전사 모임’이라는 200여명 규모 카카오톡 채팅방을 최근 개설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오는 8월 2일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를 열고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한다.

7월19일 충청권, 20일 영남권, 26일 호남권, 27일 경기·인천, 8월 2일 서울·강원·제주 경선 등 다섯 차례에 걸쳐 권역별 순회 경선을 실시한다.

후보자가 4명 이상이면 15일 예비경선을 통해 3명으로 추린다.

선거인단 반영 비율은 당 강령에 따라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여론조사) 30%로 결정됐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안심번호를 통해 여론조사 기관 2곳이 실시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로 공식이 된 최고위원은 중앙위원 50%·권리당원 50%를 합산해 선출한다.

이번에 선출하는 당 대표 등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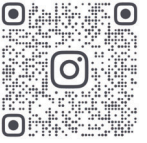
서울·김선욱 기자



@jnilbo

진일보 인스타그램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Kakao Talk: 진일보
E-Mail: jebo@jnilbo.com